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1월 26일

SKT(017670)

BUY | TP 80,000원 | CP 61,800원

KT(030200)

BUY | TP 76,000원 | CP 54,400원

LGU+(032640)

BUY | TP 20,000원 | CP 15,190원



Analyst 김홍식 prol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01월 27일 | 산업분석_Update

통신서비스 2월 투자 전략

SKT 이젠 좋게 보입니다

2월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상향, DPS 상승/저평가 해소 기대감 높아질 시점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더불어 2026년 2월엔 5개월만에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음'으로 다시 한단계 상향 조정한다. 해킹 관련 악재가 소멸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다가 사실상 4분기 실적 부진 및 DPS 불확실성에 대한 통신사 주가 반영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SKT가 3분기 무배당을 발표했지만 의외로 SKT 주가는 일시적인 충격 후 강한 지지 양상을 보였다. 2026년 배당금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SKT를 중심으로 통신주 반등이 예상된다.

2월 4Q DPS 발표가 마지막 악재, 주가 선반영 가능성 염두에 두고 전략 세워야

2월 통신 이슈는 많다. 1) 통신 3사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2) SKT와 KT 4분기 배당금 발표, 3) 미국 어퍼 C 밴드 주파수 경매안 사업자 의견 청취 기간 종료에 따른 주파수 경매 본격화 가능성, 4) 국내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 발표, 5) 과기부 해킹 관련 조사 발표 및 과징금 부과, 6)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7)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관련 행정 소송 돌입, 8) 1분기 한국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자 선정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고 보면 2025년 묵은 악재는 해소되고 2026년 새로운 호재가 부각될 공산이 커 보인다. 무엇보다 2026년 5G SA 도입과 5G 신규 요금제 출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2026년 1월 미국 어퍼 C 밴드 주파수 경매안 사업자 의견 청취 기간이 종료되고 2월부터 주파수 경매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늦게나마 2025년 12월 말 국내에서도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2026년 연초부터 5G SA로의 전환 이슈가 본격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통신서비스 업종 Multiple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2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KT=LGU+, 이젠 SKT 다시 볼 때라는 판단

통신서비스 업종 12개월 Top Pick을 SKT로 변경하고 2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SKT>KT=LGU+로 선정한다. 2월엔 SKT 매수 강도를 높일 것을 권한다. 가장 신경 쓰였던 4분기 배당금 대폭 축소 및 미지급 가능성을 대다수 투자자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조기 정상화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DPS 역시 당장 올해부터 2024년 수준으로의 회귀가 기대된다. 이젠 짓눌렸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는 엔트로픽 매각 차익으로 현금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지난해 해킹 피해로 줄었던 배당금이 조기 정상화할 가능성이 높다. DPS가 3,500원이라면 기대배당수익률 4.4%까지 주가가 상승한다고 볼 때 SKT 주가는 8만원까지 상승이 기대된다.

1. 2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상향

1)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의견 ‘비중확대’로 유지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
장기 실적 및 배당 전망 밝고 저
평가 상황이기 때문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이유는 1)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주주이익환원 확대 움직임이 지속될 전망이고, 2) 네트워크 진화 이벤트 및 시중 금리 추이를 감안하면 국내 통신 3사 배당수익률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며, 3) 2026년도 하반기엔 국내에도 주파수 경매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요금제 출시에 대한 기대감 상승이 예상되고, 4) 글로벌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통신 규제 정책이 요금인하 권고에서 통신산업 육성 쪽으로 전환될 전망이며, 5) 본질적으로 2027년에나 통신사업 이익 성장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차세대 서비스 개시 기대감으로 Multiple 확장 국면이 미리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도표 1.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의견

구분	투자의견 (2월)	투자의견 (1월)	등급 변화	사유
통신 업종	비중확대	비중확대	-	- 통신사 장기 주주환원금액 증가 추세 유지될 것 - 금리 감안 시 통신 3사 배당수익률 과도하게 높은 상황 - 주파수 경매 이후 통신사 새로운 요금제 출시 전망 - 통신 규제 정책이 산업 육성 쪽으로 전환될 것 - 이익 성장 기대감 높아지며 Multiple 확장 국면 진입 예상

주: 업종 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비중확대, 중립, 비중축소로 구분
자료: 하나증권

2월 통신주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상향 조정, 4Q 배당 리스크
선반영, 이젠 2026년 DPS 반영
할 때

2) 2월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상향, DPS 상승 기대감 커지면서 주가 오를 듯

2026년 2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음'으로 상향 조정한다. 해킹 관련 악재가 소멸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다가 사실상 4분기 실적 부진 및 DPS 불확실성에 대한 통신사 주가 반영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026년 2/5일(목) LGU+와 SKT, 2/10일(화) KT가 2025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상대로 통신 3사 실적은 좋지 않을 전망이다. 3사 모두 일회성비용 반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KT는 해킹 관련 손실, SKT는 명퇴금, LGU+는 인센티브 지급이 실적 부진의 주된 요인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컨센서스 변화 추이를 보면 이미 투자자들이 4분기 실적 부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최근 투자자들 및 주요 언론에서 SKT 4분기 DPS 급감 또는 미지급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해킹 관련 손실 및 일회성 인건비 증가로 통신 3사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개인 투자자들도 충분히 악재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2월 SKT가 전년동기비 급감한 DPS 또는 무배당을 발표하더라도 주가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SKT가 3분기 무배당을 발표했지만 의외로 SKT 주가는 일시적인 충격 후 강한 지지 양상을 보였다. 2026년 배당금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6년 대규모 주식 처분 이익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거대 AI 기업 엔트로픽의 상장 후 추정 시가총액은 400억원, 상장 후 지분 희석을 감안하면 상장 후 SKT 엔트로픽 최종 지분율은 0.4%에 달한다. 연내 매각 시 매각 차익이 1.5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엔트로픽 매각 차익은 단순히 SKT 재무 안정성 증대 및 순이익 증대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SKT 투자자들의 2026년 배당 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2025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5년 SKT는 해킹 관련 손실을 이유로 배당금을 대폭 축소시켰다. 그렇다면 2026년에는 조기 배당 정상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원론적으로는 수정 연결 순이익의 50%가 배당재원이지만 실제로 현금흐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2027년이나 2024년 수준의 SKT 배당 정상화를 예상했으나 2026년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도표 2.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

구분	투자 매력도 (2월)	투자 매력도 (1월)	매력도 변화	사유
통신 업종	4	3	▲1	2026년 SKT/LGU+ DPS 전망 긍정적으로 변화 중 - SKT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 소송 진행, 규제 리스크 완화 중 2025년 4분기 이익 컨센서스 급감, 실적 부진 주가에 기반영 - 통신사 해킹 관련 손실 반영 추정치 실적/주가에 기반영 - SKT 4Q 무배당 가능성을 이미 투자자들이 인지 - 국내 규제 기관 AI 네트워크 전략 발표, 26년 5G SA 본격화 전망 5G SA 투자 세제 혜택 및 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 연계 방안 발 표 5G 신규 요금제 연말 출시되면서 27년 APRU 상승 기대감 생길 것 - 통신사 주주환원수익을 여전히 매력적 - KT 신임 CEO 확정, 거버넌스 리스크 제거 - IFRS15에선 보조금 8개 분기 안분, 4Q 마케팅비용 급등 없을 것 - 제 4 이동 주파수 할당 대가 일시납 추진, 사업자 선정 어려울 듯 - 미국 곧 4.0GHz 대역 주파수 경매 예정, 5.5G 도입 이슈 부상 중 - 미국 총 800MHz 주파수 할당 예정, 5G 패권 경쟁 심화 양상 4차산업 패권 경쟁 이슈로 신정권 출범에도 규제 리스크 낮아 - LTE/5G 도입 당시 대비 현재 통신사 Multiple 낮은 상황 40% 이상 배당 성향 기업 배당 분리 과세 추진, 통신 3사 해당 - 제조사간 경쟁 미약, 국내 통신유통시장 과열 가능성 낮아 - 정책 금리 인하 지연 양상, 시장 금리 오히려 상승 추세 - LGU+ 2026년도엔 일시적으로 총 주주환원금액 증가 어려울 전망 - IT 위주로의 수급 풀림 발생 중, 통신사 매수세 유입 부진

주: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으로 5. 매우 높음, 4. 높음, 3. 보통, 2. 낮음, 1. 매우 낮음으로 평가
자료: 하나증권

최근 1개월/3개월간 통신주 수익률은 KOSPI 수익률을 하회, 그나마 SKT가 선방

3) 1월 통신업종 수익률 KOSPI를 하회, SKT가 그나마 상대적 양호

1월 통신 서비스 업종 수익률은 KOSPI 수익률을 하회하였다. 더불어 최근 3개월간 통신 서비스 업종 수익률 역시 시장대비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4분기 분기 배당 예상 역시 부정적으로 언급된 것이 통신사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사실상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로봇 등 시장 주도 주 위주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종목별로는 통신 3사 모두 시장대비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지만 SKT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오랜만에 양호한 실적 흐름을 나타냈다. 2026년부터는 이익 성장과 현금 흐름 개선으로 배당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다. 더불어 국책 시 업체로의 선정 가능성이 부각된 것도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도표 3. 2026년 1월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 점검

(단위: %, %p)

업종명	1개월 등락률	3개월 등락률	1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3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통신업종	7.0	9.8	(13.4)	(16.5)

주: 지수는 1/23일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4. 2026년 1월 KOSPI 대비 종목별 수익률 점검

(단위: %, %p)

종목명	1개월 등락률	3개월 등락률	1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3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SK텔레콤	17.4	15.7	(2.8)	(10.1)
KT	2.1	8.8	(19.3)	(17.4)
LG유플러스	(0.5)	1.7	(19.0)	(25.5)

주: 주가는 1/23일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4) 2월 통신주 시장대비 초과 상승 가능 기대, SKT 주가 정상화 전망

2월 4분기 실적 및 DPS 발표가
악재 해소 역할 수행할 것, 5G
SA 도입 기대감 높아지고 있어
긍정적

지난 3개월과는 달리 2026년 2월에는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이 시장대비 초과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꺼려하는 악재가 모두 소멸하는 가운데 주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시점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순환매 차원에서 최근 6개월간 주가 상승 폭이 크지 않은 탓에 통신서비스 업종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커 보인다.

2월 통신 이슈는 많다. 1) 통신 3사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2) SKT와 KT 4분기 배당금 발표, 3) 미국 어퍼 C 밴드 주파수 경매안 사업자 의견 청취 기간 종료에 따른 주파수 경매 본격화 가능성, 4) 국내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 발표, 5) 과기부 해킹 관련 조사 발표 및 과징금 부과, 6)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7) SKT 개인정보 보유출 과징금 관련 행정 소송 돌입, 8) 1분기 한국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자 선정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고 보면 2025년 묵은 악재는 해소되고 2026년 새로운 호재가 부각될 공산이 커 보인다. 4분기 실적과 배당이 발표되는 가운데 KT 과징금이 발표될 것인데 아마도 악재 소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런 가운데 SKT 행정 소송 참여는 규제 우려를 해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론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SKT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00억원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 자체에 투자자들이 긍정적 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투자가 입장에선 향후 규제에 대한 공포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규제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기존 경영진의 언급을 실행함으로써 규제 리스크가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아직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2026년 5G SA 도입과 5G 신규 요금제 출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1월 미국 어퍼 C 밴드 주파수 경매안 사업자 의견 청취 기간이 종료되고 2월부터 주파수 경매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늦게나마 2025년 12월 말 국내에서도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통신 시장은 미국과 달리 네트워크 투자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신규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유선 투자 역시 이슈가 없다. 그런데 피지컬 AI에 대응하기 위해 5G SA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내외적으로 빅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 이제 국내도 글로벌 5G 도입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물론 5G Stand Alone이 Release 18라고 불리는 5G Advanced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G SA는 통신장비 투자를 촉진할 것이며 신규 5G 요금제 출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충분하진 않지만 이미 5G 인프라가 확충된 지 수년이 지난 상황에서 기존 주파수에 추가 투자를 할 경우 CAPEX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2026년도엔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신규 주파수 경매 및 투자에 나서고 5G SA로 진화하는 가운데 차세대 서비스 도입 명분 하에 새로운 5G 요금제를 도입, 요금제 업셀링에 나설 공산이 크다. 단기 미국을 중심으로 통신 장비 업종에 큰 수혜가 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에도 진보된 네트워크 도입 압력 증대와 더불어 신규 요금제 출시를 앞당길 것으로 보여 통신서비스 업종에도 수혜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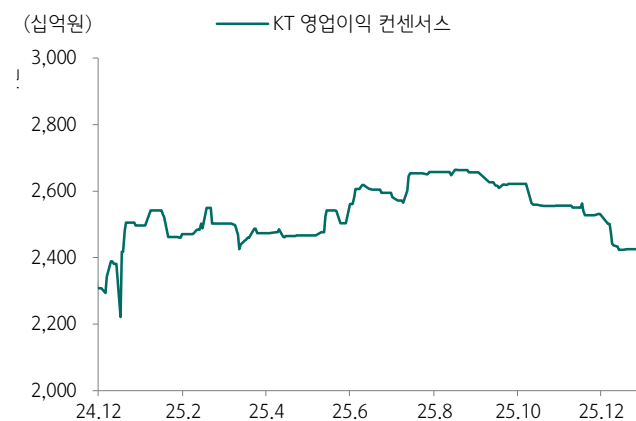
도표 5.2월 통신서비스 업종 이슈 점검

2025년 실적/DPS 우려 없어지고
통신주 2026년 DPS 상승 기대감, 5G SA 도입 기대감 높아질 시점

구분	내용
긍정적 요소	• 국내 하이퍼 시 네트워크 전략 발표, 2026년 5G SA로 전환 예상 • 미국 어퍼 C밴드 주파수 경매 개시, 국내도 점차 네트워크 진화 기대감 높아질 전망 • 엔트로픽 매각 차익 1.5조원 예상, 현금흐름 개선으로 SKT 2026년 DPS 조기 정상화 전망 • 4월부터 통신 3사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 적용, 세후 수익률 높아 SKT 수혜주로 분류될 전망 • KT 신임 CEO 확정, 거버넌스 리스크 소멸 • 양자암호통신 중요성 부상, 차세대 서비스에 기본 탑재되며 킬러 서비스 역할 수행할 듯 • 신정권 출범에도 통신요금인하 보단 네트워크 투자 활성화에 규제 정책 힘 실릴 전망 • 가입자 유치 강도 높아지는 상황이나 IFRS 회계 특성상 통신사 특정 분기 마케팅비용 급증 어려워 • 제조사간 경쟁 어려워 단통법 폐지에도 국내 통신 유통 시장 크게 영향 받긴 어려운 상황 • 정책 금리 인하 및 시중 금리 하락으로 통신사 높은 배당수익률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 규제 당국 추진에도 제 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가능성 낮음, 재무적 이슈 여전히 크기 때문
부정적 요소	•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되어도 외국인 한도 적용 기업은 자사주 의무 소각 예외 적용될 듯 • 2025년 4분기 통신 3사 모두 컨센서스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 기록 예상 • SKT 4분기 배당금 큰 폭 축소 또는 미지급 전망 • 2월 KT/LGU+ 과징금 부과 가능성 존재 • LGU+ 2026년 자사주 소각 규모 감소로 연간 주주이익환원 규모 올해 수준에 그칠 전망 • 2024년 이후 트래픽 정체 양상 심각, 요금제 개편 없을 시 통신사 매출 증가 우려감 커질 것 • 통신사+금융권 합산 알뜰폰 M/S 60%로 제한 전망, MVNO 가입자 확대에 제동 걸릴 전망 • 5G 순증 가입자수 월 20만명대로 급감, 이동전화매출액 성장 우려 커질 전망 • AI 등 신사업 성과 부진, 유료화/요금제 도입 험난한 상황 • 국내 통신사 PBR 낮지만 해외 통신사 대비 ROE가 낮은 편
종합 평가	• 통신사 4분기 실적/DPS 전망 부정적, 하지만 26년 이익/배당 급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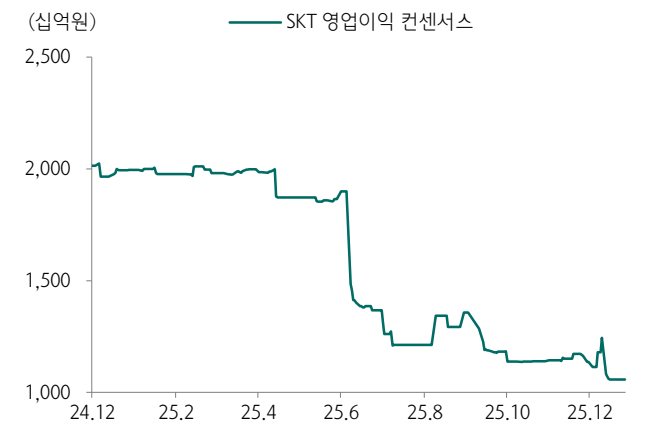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도표 6. KT 2025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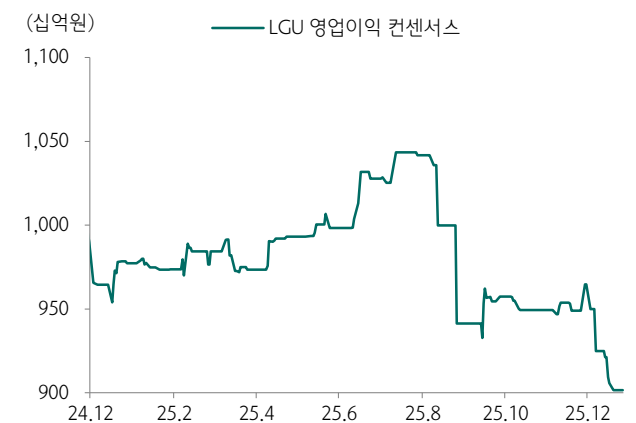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7. SKT 2025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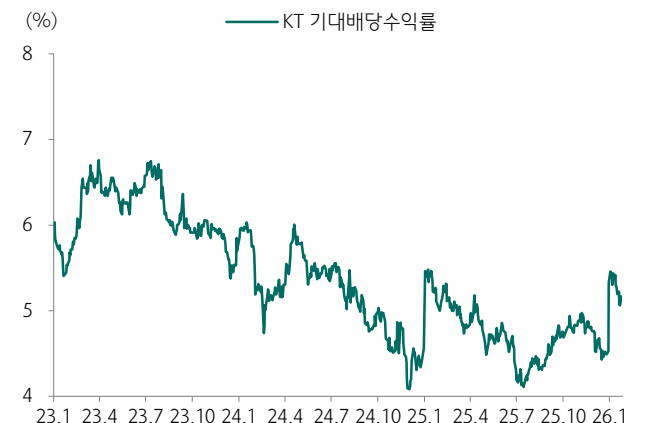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8. LG유플러스 2025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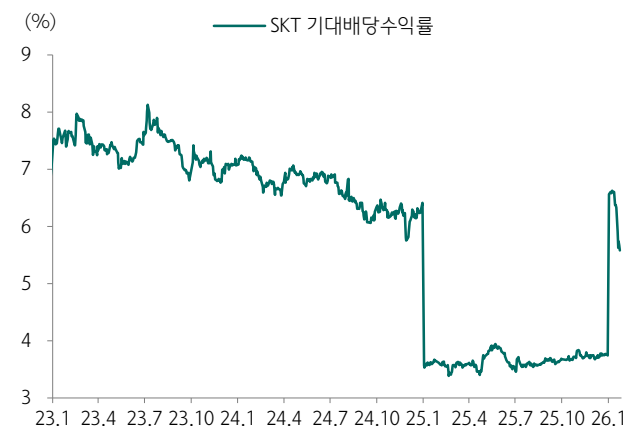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9. KT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0. SK텔레콤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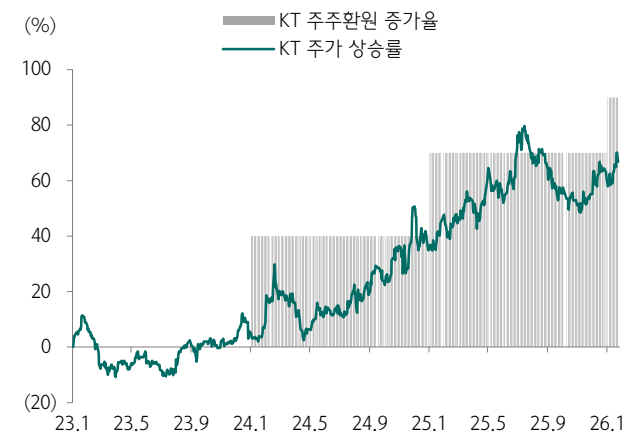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1. LG 유플러스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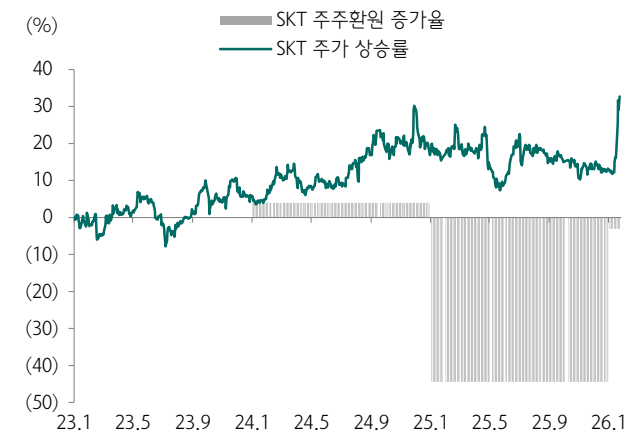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2. KT 2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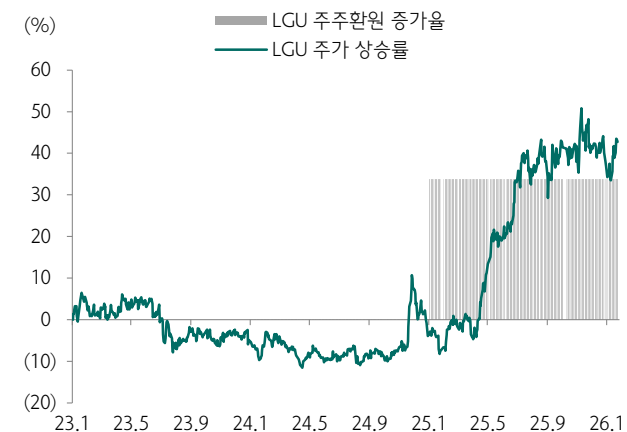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5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3. SK텔레콤 2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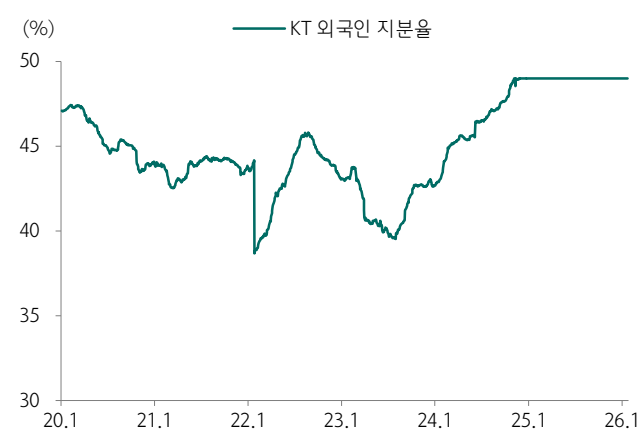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5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4. LG유플러스 2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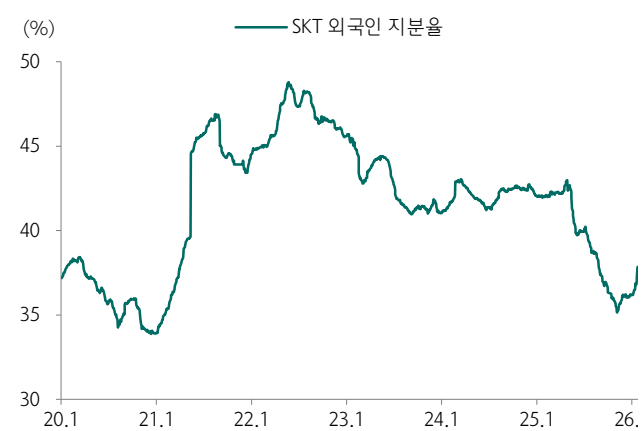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5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5. KT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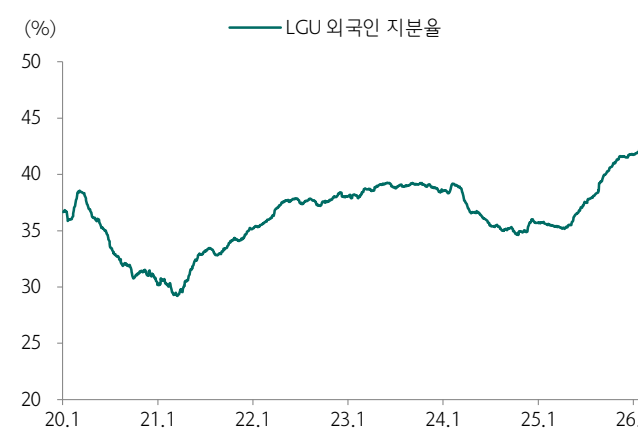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6. SK텔레콤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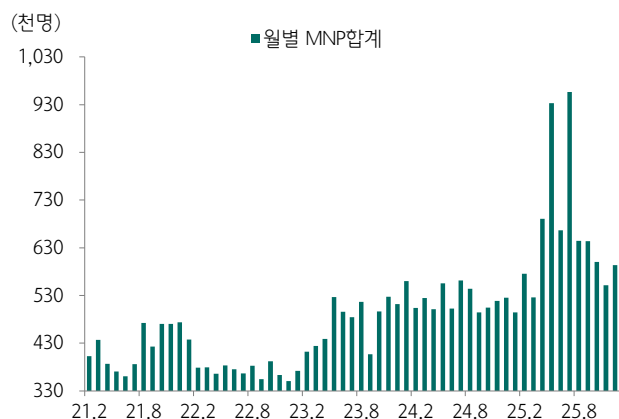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7. LG유플러스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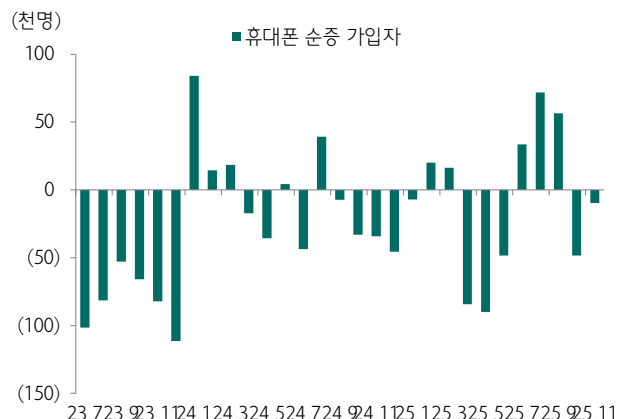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8. 월별 이동통신 MNP 합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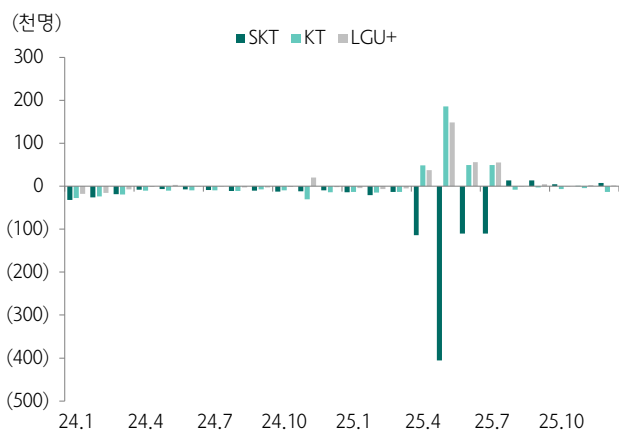
자료: KTOA, 하나증권

도표 19. 휴대폰 순증가입자수 추이(통신 3사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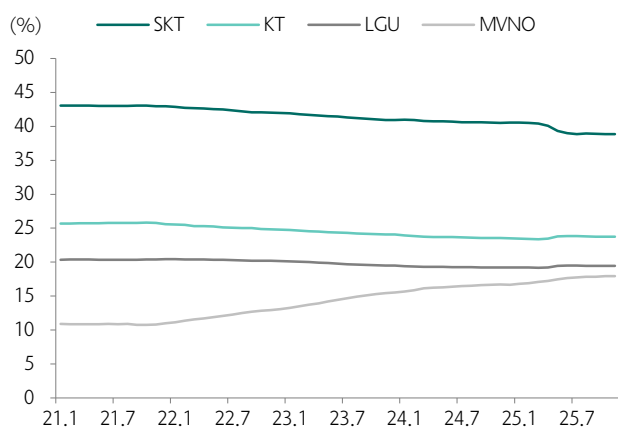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0. 사업자별 MNP 순증(순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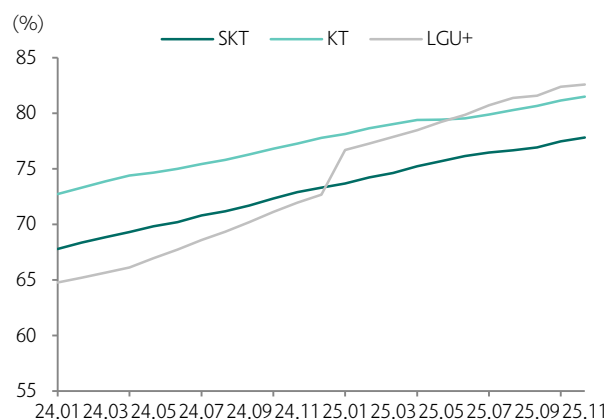
자료: KTOA, 하나증권

도표 21. 휴대폰 누적가입자수 M/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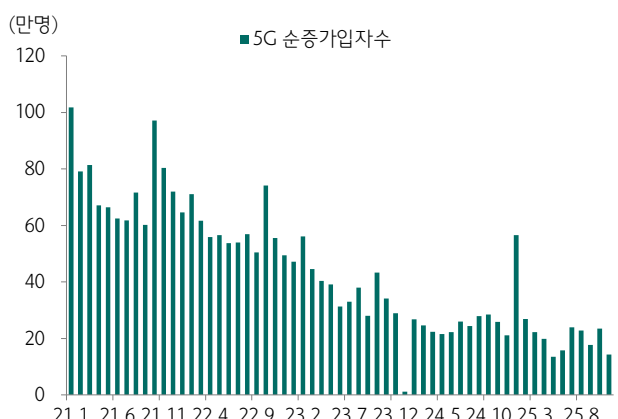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2. 통신 3사 5G 보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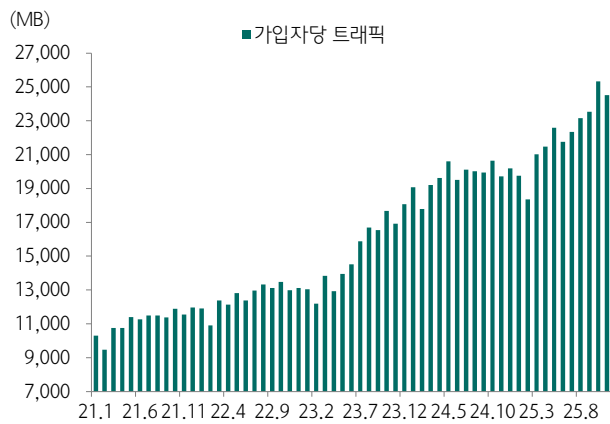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3. 5G 순증가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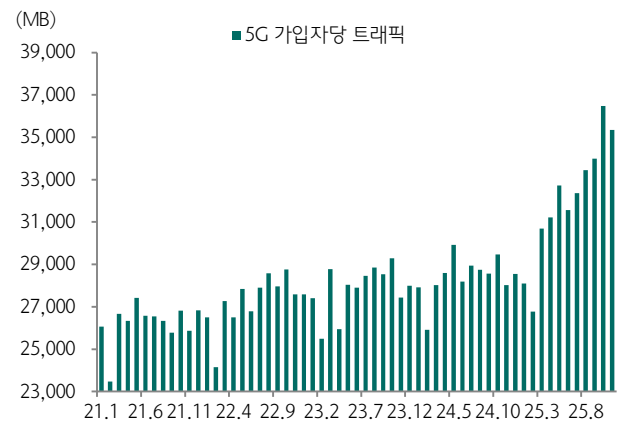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4. 국내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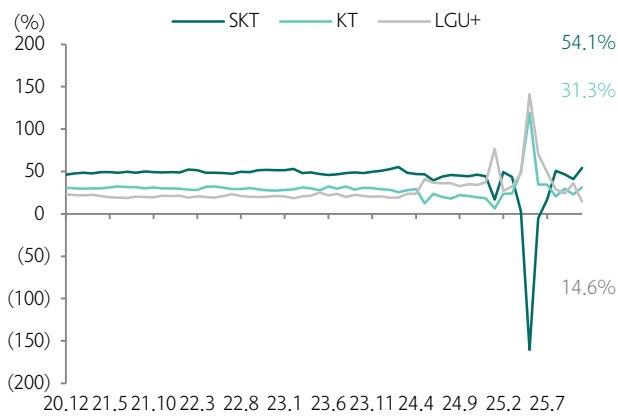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5. 5G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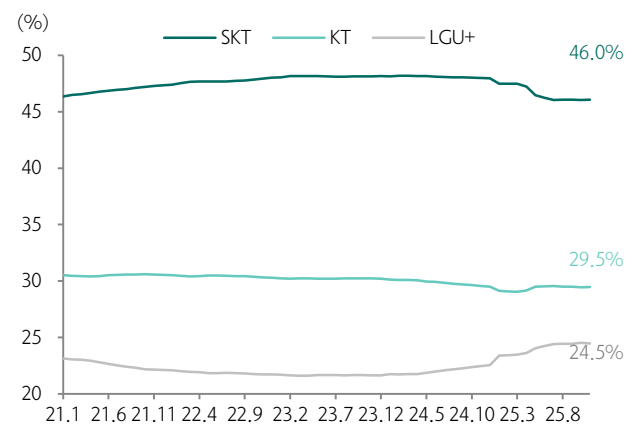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6. 5G 순증 가입자 M/S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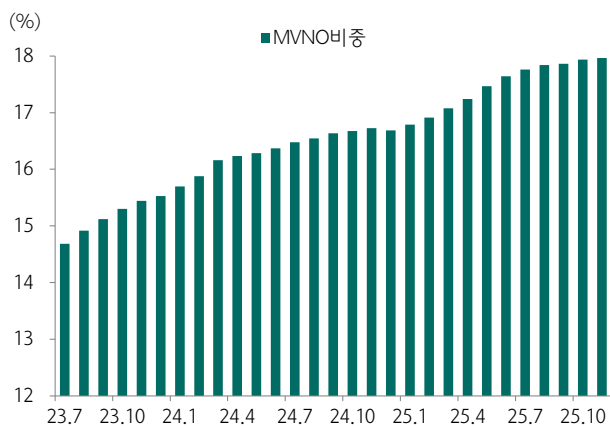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7. 5G 누적 가입자 M/S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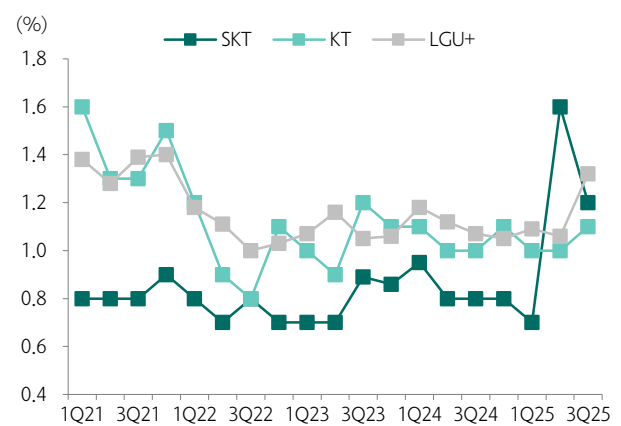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8. MVNO(재판매)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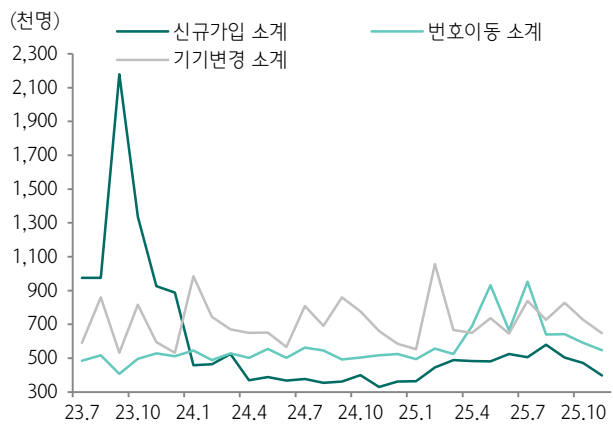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9. 통신 3사 분기별 해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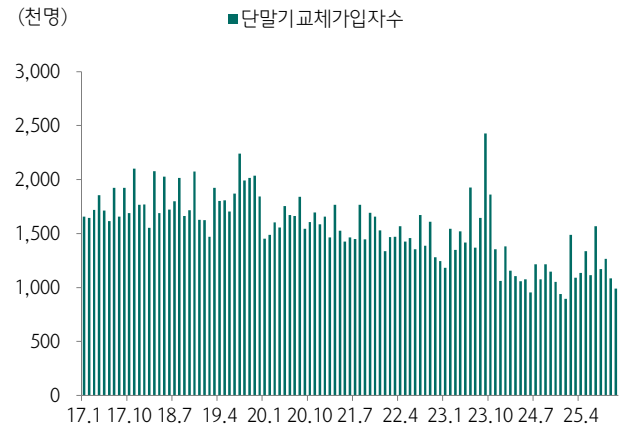
자료: 각 사, 하나증권

도표 30. 이동전화 가입 유형별 가입자수 추이 (재판매제외)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31. 통신 3사 단말기교체가입자수(신규+기변+MNP) 합계 추이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2. 12개월 Top Pick은 SKT로 변경, 2월 투자매력도는 SKT>KT=LGU+ 순으로 평가

1) 12개월 Top Pick을 SKT로 변경

12개월 Top Pick을
SKT로 변경,
2026년에는 이익 급성장 속에
DPS 정상화 예상되기 때문

통신서비스업종 12개월 Top Pick을 SKT로 변경한다. 1) 장/단기 이익 흐름 및 성장률, 2) 장/단기 배당 또는 주주이익환원 성장률, 3) 기대 배당 수익률 및 주주환원 수익률, 4) 네트워크 경쟁력 및 차세대 서비스 도입에 따른 수혜 정도, 5) M/S 추이 및 매출액 성장률, 6) 마케팅비용/감가상각비/경비 등 비용 전망, 7) 정부 규제 영향, 8) 유통 경쟁력 및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9) 신사업 및 M&A 실적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 10) 자회사 실적 및 IPO 추진 예상, 11)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러한 기준 하에 향후 12개월간 투자 매력도를 평가하면 통신 3사 중 SKT가 가장 투자 유망하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SKT를 12개월 장기 Top Pick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이미 악재를 인식한 가운데 다가올 화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SKT는 해킹 관련 비용이 모두 회계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해킹 관련 과징금 행정 소송에 나선 상황이며 유심 관련 비용 환입 가능성이 열려있다. 해킹 관련 리스크는 이제 완전 소멸되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엔트로픽 IPO에 따른 매각 차익 발생이 조기 배당 정상화를 이끌 수 있어 긍정적이다. 원론적으로 조정 연결 순이익의 50%를 배당 재원이라고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 현금흐름을 무시할 수 없는 관계로 일회성손익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2027년에나 배당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2026년에 배당금이 예년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져 긍정적 주가 전망을 하게 한다.

도표 20. 통신 3사 투자 환경상 긍정적/부정적 요인 점검

구분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KT	- 인건비/경비 감소로 본사 이익 성장 장기 지속될 전망 - 부동산 분양 이익 발생으로 자회사 실적 호전 지속 전망 - 실질 자산가치대비 시가총액 작은 상황 - 케이뱅크 상장 가능성 증대	- 외국인 한도 존재, 자사주 소각 현실적으로 어려워 - 인당 효율성 낮음, 과도한 영업비용 존재 - 외국인 한도 소진, 수급상 불리함 존재 - PBR 낮지만 3사 중 ROE도 가장 낮은 편
SKT	- 회계적으로 해킹 관련 손실 전액 반영 - 낮은 기저로 2026년도엔 높은 이익 성장 전망 - SK브로드밴드 실적 호전 본격화, 자회사 배당금 유입 지속될 전망 - 주식 매각 차익 발생 전망, 2026년도엔 DPS 급증 전망	2025년 4분기에도 DPS 급감 전망 5G 가입자 정체/이동전화매출액 정체 양상 - 배당 변동성 커져 투자가 신뢰도 하락 5G SA로의 진화,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
LGU+	- 이익 성장률/배당 성향 수준으로 볼 때 장기 배당 증가 여력 존재 - 비용 이슈 종결, 이익 측면에서 양호한 흐름으로 전환 예상 2026년 높은 연결 영업이익 성장 기록할 전망 - 통신 3사 중 PER, PBR 가장 낮음, 상대 서비스 매출액 성장률 높음	- 이동전화매출액 성장 둔화, B2B 매출 성장 폭 둔화 - 과거 대비 낮은 5G 순증 가입자 M/S 기록 중 - 주주 환원 규모로 보면 2026년 단기 정체 예상 - 배당수익률만 보면 그리 높지 않은 편
종합평가	2026년 이익 급증, DPS 정상화 가능성 감안하여 SKT를 12개월 최선호주로 선정	

자료: 하나증권

2) 2월 매력도는 SKT>KT=LGU+ 순, 예상외 SKT 매력도 급상승 평가

2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KT=LGU+ 순으로 평가,
DPS 조기 정상화 기대감 커지는
SKT 매수 추천

2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 역시 SKT>KT=LGU+로 제시한다. 12개월 Top Pick과 마찬가지로 2월 통신서비스 월간 Top Pick도 SKT로 제시한다. 약재가 소멸되고 호재가 등장할 국면이기 때문이다.

2월엔 SKT 매수 강도를 높일 것을 권한다. 가장 신경 쓰였던 4분기 배당금 대폭 축소 및 미지급 가능성을 대다수 투자자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조기 정상화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DPS 역시 당장 올해부터 2024년 수준으로의 회복이 기대된다. 이젠 잊혔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는 엔트로픽 매각 차익으로 현금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지난해 해킹 피해로 줄었던 배당금이 조기 정상화할 가능성이 높다. DPS가 3,500원이라면 기대배당수익률 4.4%까지 주가가 상승한다고 볼 때 SKT 주가는 8만원까지 상승이 기대된다. 2026년 5G SA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시중 금리도 하락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1월 최선호주였던 KT의 경우엔 당초 예상만큼 탄력적인 주가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자사주를 배당으로 꼭 돌려 지급할 이유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2월 3차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의무 소각이 법제화더라도 외국인 한도가 적용되는 통신 서비스 업종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KT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을 배당으로 돌려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경우 2025년과 같은 밸류에이션 저평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물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하지만 만약 KT에 자사주 의무 소각이 적용되지 않고 KT 경영진이 2026년도에도 2,500억원의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면 주가 상승 기대감은 이전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물론 자사주 매입 자체가 수급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경쟁사대비 개인주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KT 주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당장 자사주 소각이 어려운 관계로 배당을 제외한 자사주는 주주환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정적 시각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KT Multiple이 경쟁사대비 낮게 형성되고 배당수익률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LGU+의 경우엔 2월부터는 서서히 비중을 늘려 나갈 것을 권한다. 1월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면 좋았겠지만 현 가격에도 부담은 없어 보인다. 2026년 기준 주주환원수익률이 6%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했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2025년 실적과 2026년 주주이익환원 정체도 이제는 투자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관계로 부담이 준 상태다. 반대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026년에 900억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행함으로써 2027년 주주환원증대 기대감과 수급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2월 4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란 판단이다. 올해는 주주환원수익률 4.5% 수준인 2만원까지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도표 21.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 의견

구분	투자의견	목표가 (12개월)	사유
KT	매수	76,000원	• 2026년에도 본사 이익 성장 전망, 부동산 자회사 이익 개선 예상
SKT	매수	80,000원	• 2026년도엔 높은 이익 성장, DPS 다시 큰 폭 증가 전환 예상
LGU+	매수	20,000원	• 2026년 높은 연결 영업이익 성장 전망, 낮은 PBR/PER

주: 1) 종목 투자 등급은 1. 매수, 2. 중립, 3. 비중축소, 2)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도표 22. 2월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매력도 순위

순위	종목명	주가(1/23)	3개월 예상 주가 밴드	P/E	P/B	평가 사유
1	SKT	62,700원	55,000~80,000원	38.9	1.1	• 올해 높은 DPS 성장 예상, 배당 분리 과세 수혜주
2	KT	54,200원	50,000~75,000원	7.8	0.8	• 자사주 배당 전환 없으면 주가 상승 폭 예상보다 적을 수도
2	LGU+	15,340원	14,000~20,000원	12.6	0.7	• 2026년 이익 급증 전망, 2027년 주주환원 기대감 높아질 것

주: 2025년 예상 실적 기준, 단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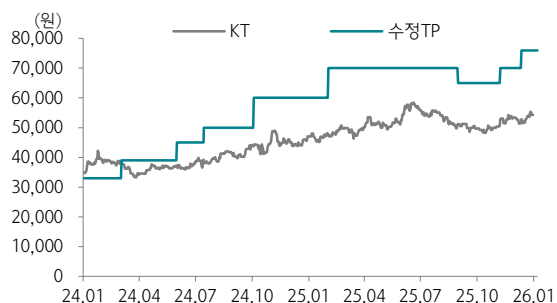
도표 23. 2월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매력도 순위 변화

구분	순위(2월)	순위(1월)	순위 변화	사유
SKT	1	3	▲2	• 주식매각차익 발생으로 2026년 조기 배당 정상화 전망
KT	2	1	▼1	• 거버넌스 리스크 해소, 단 자사주의 배당 전환 없다면 밸류에이션 저평가 양상 지속 전망
LGU+	2	2	-	• 2026년에도 900억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예상, 장기 밸류업 기대감 높아질 것

주: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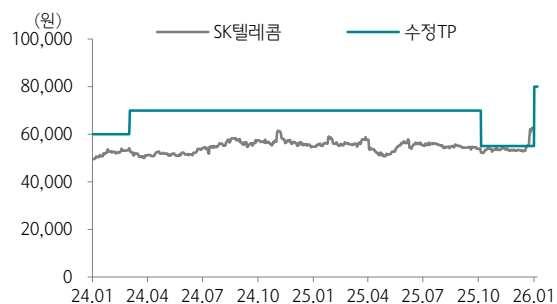
KT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6	BUY	76,000		
25.12.3	BUY	70,000	-24.70%	-22.57%
25.9.25	BUY	65,000	-23.37%	-21.23%
25.2.27	BUY	70,000	-25.61%	-16.57%
24.10.29	BUY	60,000	-24.54%	-18.33%
24.8.9	BUY	50,000	-18.52%	-11.60%
24.6.26	Neutral	45,000	-17.00%	-11.44%
24.3.28	Neutral	39,000	-7.79%	-3.33%
23.9.11	Neutral	33,000	5.93%	27.88%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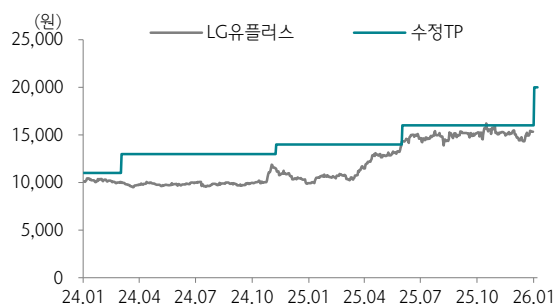
SK텔레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27	BUY	80,000		
25.10.31	BUY	55,000	-1.40%	14.00%
25.3.28	1년 경과		-	-
24.3.28	BUY	70,000	-21.72%	-12.14%
23.12.21	BUY	60,000	-14.64%	-9.83%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LG유플러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27	BUY	20,000		
25.6.27	BUY	16,000	-6.39%	1.31%
24.12.4	BUY	14,000	-19.13%	2.14%
24.11.26	BUY	13,000	-10.26%	-8.46%
24.3.28	Neutral	13,000	-24.06%	-13.54%
23.12.21	Neutral	11,000	-8.00%	-4.64%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1월 2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2026년 1월 2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5.79%	4.21%	0.00%	100%

* 기준일: 2026년 01월 24일